

“논밭·마을이 바로 열린 교실”

유기농법 첫도입...지역사회 연계 농촌·환경지키기 실천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는 지난 58년 문을 열어 63년 교육법상 '각종 학교'로 인가받았다. 박정희 정권이 농촌을 산업화의 값싼 노동력 공급처로 전락시키기 몇해 전부터 풀무학교는 이미 '농촌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곳곳이 농촌살리기에 힘쓴 풀무학교가 최근에야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개교 이래 줄곧 미달사태를 빚던 이 학교는 두해 전부터 지원자가 입학정원을 넘어섰고, 지난 10월28일 치른 97학년도 신입생 시험에서는 3:1을 웃도는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10월16일 풀무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충남도 교육감이 이 학교를 찾는 '사건'도 있었다.

무엇이 전교생 72명의 이 작은 시골학교를 객쟁이 도시인들이 선망하는 대상으로 만들었을까.

충남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665번지의 너른 대지 위에 자리잡은 풀무학교에는 교문이 없다. 작은 경계석만 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든 이 경계석은 '간판교육보다는 실력교육'을, '작게, 형식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를 내세우는 이 학교의 정신을 집약하고 있다.

우두머리도 꼴찌도 없는 세상을 이끌 '위대한 평민'을 배출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학문으로 머리를, 신앙으로 가슴을, 노작교육으로 손을 단련시키는 교육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일반 교과시간이 60%, 자유교양과 실습시간이 40%인 교과편성에 잘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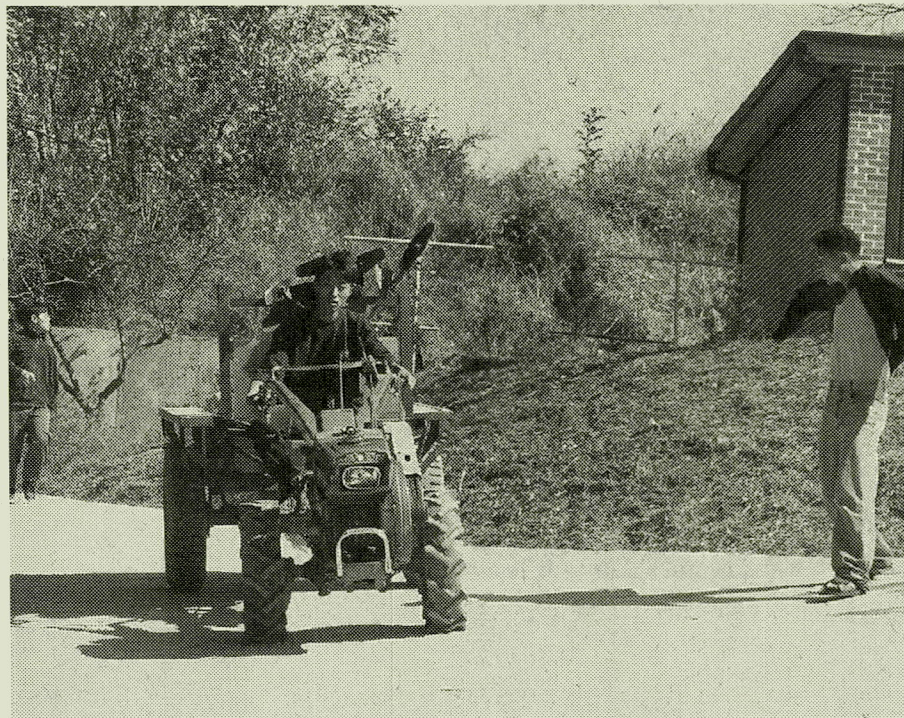
학교에 들어서면 맨처음 보이는 게 지역교육관이다. 지역과 학교의 접촉점 구실을 하는 이곳에는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홍성 정농회(유기농 홍성지부) 사무실이 있다. 풀무학교는 유기농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보급한 곳이기도 하다.

그 옆으로 학생들이 격일로 2시간씩 수업받는 실습지가 있다. 논과 채소 온실, 화훼 온실이 갖춰진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하나씩 골라 노작교육을 체험한다.

그리고 본관 2층 건물인 이곳에서 한학년 1개반씩 3개 학년 72명의 학생이 학문을 탐구한다. 1층 강당에서는 매달 교사와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전교회의를 연다. 책임이 따르는 참여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

본관 옆에는 휴담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부속실이 있다. 제빵실, 목공실, 탁구실, 과학실,

대안교육이 열린다 ③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



운동장 풀베기 작업을 마친 한 학생이 점심밥을 먹기 위해 경운기를 몰고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건물은 남학생 기숙사. 홍성/김경호

농업실, 학우회 사무실로 이뤄져 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능력과 취향에 따라 '이동식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한다. 70년대 말까지 교실로 쓰였던 이곳은 작고한 함석헌 선생의 특강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 뒤가 식당. 유기농법으로 경작한 농산물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이곳에서 밥짓기는 교직원 가족들이, 설거지는 학생들이 맡는다.

학교 맞은편 10분 거리의 갯골에는 논과 자연식품 된장공장, 재생비누조합공장 등이 있고, 읍내에는 신협, 소비자 생협, 지역신문 등이 있다. 풀무학교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기관은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열린 교과서이자 교실로 여기는' 이 학교의 교육정신이 구체화된 실례다.

언젠가 1학년 학생이 입학때의 '열가지 약속'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다 걸린 적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2, 3학년 학생들은 곧바로 학년 회

의를 연 뒤 연쇄 단식에 들어갔다. 자신들의 행실이 옳지 못해 후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 1학년 학생은 선배들의 '압력'에 굴복해 담배를 끊었다.

그렇게 녹슨 쇠, 무딘 날을 불에 달궈 단단한 연장으로 만드는 '풀무'의 정신은 학교 곳곳에 살아있다.

(지난 10월16일 풀무학교를 찾았을 때 정승관 교무주임은 기자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면서서도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외부의 지나친 관심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유형병처럼 번지고 있는 최근의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의 경박함을 질책하는 듯했으나, 교육의 대안에 대한 고민은 풀무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이라 판단해 기사를 씁니다. 풀무학교의 이해를 바랍니다.)

홍성/이제훈 기자



오전 수업시간을 이용해 3학년 학생들이 운동장에 무성한 잡풀을 베고 있다. 홍성/김경호

□ 1회 졸업생 이번영씨

“더불어살기 배워” 딸도 이학교 보내

지난 88년 시군 단위에선 처음으로 <홍성신문> 창간을 주도했던 이번영 편집국장은 풀무농업기술고교 1회 졸업생이다.

—자녀가 풀무학교에 다닌다는데.

—딸 아이 보미가 다니다.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잘해 교사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일반 고등학교에 가야한다'고 권하기도 했지만, 공부보다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풀무학교에 보냈다.

—후회한 적은 없는지.

—없다. 보미가 학교생활을 아주 즐겨워 한다. 일반학교 학생들중 학교생활을 즐겨워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또래들과 하루종일 뒹굴며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배우는 것 같다. 보미 말고도 재학생 중에는 풀무학교 2세가 많다.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는지.

—창조적인 사고, 주체적인 민족사관, 농촌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웠다. 지금의 나는 풀무학교에서 형성됐다. 졸업생들도 대부분 사회의 민주화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